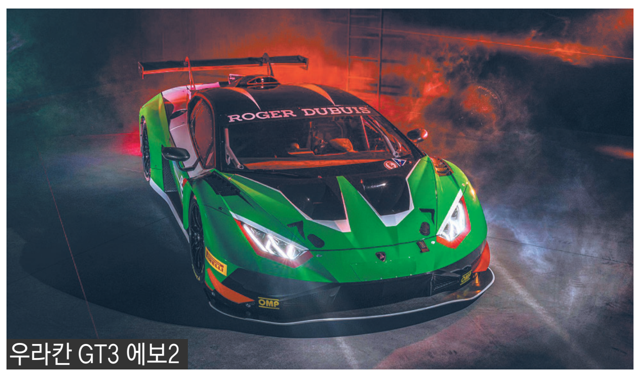

우라칸 GT3 에보2

자연흡기식 V10 엔진 640마력 괴물 람보르기니 ‘우라칸 GT3 에보2’ 공개

오토모빌리 람보르기니가 공도용 레이싱카 우라칸 STO를 기반으로 설계된 레이싱 버전인 ‘우라칸 GT3 에보2’를 선보였다.

람보르기니의 모터스포츠 전담 부서인 스쿼드라 코르세가 개발했으며, 자연 흡기식 V10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640마력의 출력을 발휘한다. 차체는 탄소 섬유만으로 제작됐으며 새로운 스플리터, 디퓨저, 차체 하부를 통해 공기역학적 효율성을 끌어올렸다. 고강도 자일론 섬유로 코팅된 탄소 섬유 바닥은 새로운 디퓨저와 함께 이전 세대인 GT3 에보보다 더 큰 다운포스를 만들어낸다. 제동 시스템은 스쿼드라 코르세가 설계한 새로운 캘리퍼와 패드를 적용해 성능을 끌어올렸다. 아울러 전용 트랙션 컨트롤(TCS) 및 안티-록 브레이킹 시스템(ABS)과 결합된 제동 솔루션은 접지력이 낮은 조건에서도 차량을 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우라칸 GT3 에보2 트랙 데뷔는 ‘2023년 데이토나 24시’로 예정돼 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인도가 시작되며, 국내 출시 시기는 미정이다. 원성열 기자

렉서스, RX 홍보대사 프로골퍼 4인 계약 연장

렉서스코리아는 하이브리드 SUV 모델인 RX의 홍보대사(사진)로 활약하고 있는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안지현(메디힐), 허다빈(한화큐셀), 현세린(대방건설)과 KPGA(한국프로골프협회) 박상현(동아제약) 등 총 4명의 프로골퍼에 대한 계약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했다. 총 9명으로 구성된 ‘팀 렉서스’ RX 홍보대사들은 이번에 재계약한 4명의 프로골퍼와 함께 KLPGA 박현경(한국토지신탁), 이소미(SBI저축은행), 최혜진(롯데), KPGA 송영한(신한금융그룹), 함정우(하나금융그룹) 프로골퍼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에게는 RX 홍보대사로서 훈련이나 경기 참가 시 사용할 수 있도록 RX 라인업이 제공된다. 렉서스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SUV ‘RX’는 스트롱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전자식 사륜구동 ‘E-Four’ 시스템을 적용해 뛰어난 주행 성능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실현한 모델로 호평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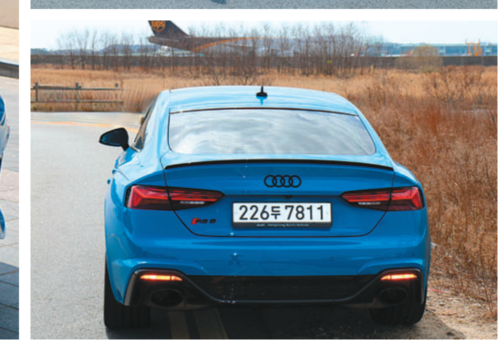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원성열 기자의 CAR & TRACK | 아우디 RS5 스포트백 시승기

제로백 3.9초…RS5, 일상과 트랙 경계를 깨다

〈스포트백〉

최고 450마력·토크 61.81kg·m 카리스마 넘치는 디자인 매력적 승차감도 굿…데일리카로도 OK


아우디 RS5 스포트백은 제로백 3.9초의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갖춘 초고성능 세단이다. 카본 프론트 립과 검은색 RS5 배지가 강렬한 인상을 주는 전면 디자인과 스포트백 특유의 아름다움이 극대화된 측면 디자인, 리어 디퓨저와 RS 배기 시스템이 역동적인 느낌을 주는 후면 디자인(왼쪽부터 시계방향) 등 어느 각도에서 봐도 매력적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최근 아우디에서는 고성능 전기차(이트론 시리즈)와 초고성능 내연기관차(RS 시리즈)를 속속 선보이며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다. 물론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이와 같은 전략을 추구하고 있지만, 아우디만큼 그 밸런스가 완벽하다고 느껴지는 브랜드도 드물다. 최근 시승한 아우디의 고성능 전기차 이트론 스포트백과 RS 이트론 GT에서 느낄 수 있었던 미래지향적인 퍼포먼스도 인상적이었지만, 초고성능 내연기관차인 RS5 스포트백이 보여준 날 것 그대로의 폭발적이고 생생한 주행 감성은 전기차 시대에도 여전히 내연기관차의 매력은 살아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줬다.

●일상과 퍼포먼스의 완벽한 조화

RS(Racing Sport)는 아우디의 고성능 모델을 뜻한다. 아우디 차량에서 RS 배지를 발견한다면, ‘일상적인 주행 감성을 넘어서는 극한의 성능을 구현한 차’라고 생각하면 된다.

RS5 스포트백은 조금 더 특별하다. 스포트백 특유의 유려하고 매력적인 디자인에 중형 세단으로서의 실용성, 제로백 3.9초의 초고성능 퍼포먼스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RS5 모델은 지속적으로 선보여 왔지만, RS5 스포트백 모델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 뉴 아우디 RS5 스포트백은 2.9L V6 가솔린 직분사 터보차저(TFSI) 엔진과 8단 팁트로닉 자동 변속기를 탑재하고 있다. 최고출력은 450마력, 최대토크는 61.81kg·m다.

시승차에 적용된 컬러는 광이 나지 않는 솔리드 터보블루로 원색적인 아름다움이 차량의 성능과 잘 매치되는 느낌이다. 차체 디자인은 어떤 각도에서도 매력적이지만 특히 후면 디자인이 압권이다. RS 모델임을 상징하는 리어 디퓨저와 RS 배기 시스템을 통해 가만히 서 있어도 달리는 듯한 역동적인 느낌을 준다.

전면부의 카리스마도 만만치 않다.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와 카본 프론트 립, 그 안에 달려있는 검은색 RS5 배지도 RS5 스포트백의 강렬한 인상을 완성하는 요소들이다.

시동을 걸면 맹수의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닮은 엔진 사운드가 가슴을 뛰게 한다. 정지상태에서 100km/h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단 3.9초. 고속도로에 올라도 가속 페달을 한번에 끝까지 밟는 것이 두려울 정도의 퍼포먼스다.

가속 성능, 고속 직진 주행, 고속 코너링에서의 안정감은 제원표상의 출력보다 체감상 더 빠르고 안정적이다.

RS5 스포트백에는 스포츠 디퍼렌셜을 포함한 사륜구동 시스템 ‘콰트로’와 ‘RS 스포츠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다. 특히 고속 코너 구간에서는 네 바퀴 전체에 전달되는 토크를 활용해 더 민첩하게 코너를 탈출할 수 있다. 스포츠 디퍼렌셜의 역할도 크다. 코너 구간에서 가속하면 안쪽 바퀴에는 제동을 걸고 바깥쪽 바퀴에는 더 큰 토크로 동력을 실어 더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해준다. 제동 성능도 뛰어나다.

딜레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패들쉬프트까지 활용하면 더 민첩한 변속과 코너 탈출, 고속 직진 주행이 가능해진다. 서킷 주행을 할 때 더욱 빛나게 될 기능들이다. 전체적인 안정감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운전자의 주행 실력이 자연스럽게 한 단계 끌어올려지는 느낌이다.

데일리카로 활용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수준의 준수한 승차감도 매력적이다. 고르지 못한 노면을 지날 때나 방지턱을 넘을 때도 기대 이상으로 부드럽다. 공인연비는 복합 8.6km/L, 도심 7.4km/L, 고속 10.7km/L다. 퍼포먼스를 생각하면 고속도로 연비가 10.7km/L 이상인 것을 감사해야 할 정도다.

인테리어는 호화롭다. 나파가죽 시트, 알칸타라로 마감된 스티어링휠과 도어트림, 곳곳을 장식하고 있는 카본 마감 등에서 럭셔리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운드 시스템은 19개의 스피커로 구성된 뱅 앤 올룹슨이다. 가격은 1억2102만 원부터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1회 충전에 401km…‘신형 니로 EV’ 더 강해졌다

〈기아〉

1세대 모델 대비 넓어진 실내 공간 기아 최초로 배터리 컨디셔닝 적용

기아의 친환경 전용 SUV ‘디 올 뉴 기아 니로(이하 신형 니로)’가 하이브리드 모델에 이어 전기차(EV) 모델을 선보였다.

신형 니로 EV는 고효율 전동화 시스템을 적용해 401km에 달하는 1회 충전 주행거리를 달성하고, 3세대 플랫폼을 적용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실내 공간을 확장시킨 것이 특징이다.

신형 니로 EV에는 최대 출력 150kW와 최대 토크 255Nm의 전륜 고효율 모터가 적용되어 있다. 또한 64.8kWh 고전압 배터리,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 2.0, 고효율 난방 시스템인 히트펌프와 배터리 히팅 시스템을 등을 탑재했으며 주행 저항 개선 등을 통해 1회 충전으로 401km 주행 거리를 구현했다. 복합 전비는 5.3km/kWh다.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 2.0은 전방의 교통 흐름과 내비게이션 지도 정보, 운전자 감속 패턴 정보를 이용하여 회생제동량을 자동으로 조절함으로써 전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배터리 온도를 최적으로 관리해주는 ‘배터리 컨디셔닝’은 기아 전기차 최초로 적용된 기능이다. 외부 온도가 낮을 때 출력 성능 확보를 위한 배터리 예열 기능과 고객이 급속 충전소를 목적지로 설정하면 배터리 온도를 미리 최적화해 충전 성능을 확보하는 기능도 갖췄다.

신형 니로 EV는 고효율 전동화 시스템을 적용해 1회 충전으로 401km를 주행할 수 있다. 사진제공 | 기아

3세대 플랫폼을 적용함한 것도 의미있는 변화다. 배터리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배터리 하부에 알루미늄 보강재를 적용했으며, 차체 주요 부위에 핫스탬핑 부재를 보강하는 등 EV 맞춤형 고강성 경량 차체 구조 설계를 반영했다. 이를 통해 차체 안전성을 강화하고 실내 공간을 개선했으며 차량 응답성, 핸들링, 정숙성, 제동 성능 등 전반적인 기본기도 크게 끌어올렸다.

전장은 1세대 니로 EV 대비 45mm 늘어난 4420mm, 축간거리는 20mm 늘어난 2720mm로 여유로운 실내 거주 공간을 완성했다. 트렁크 공간은 475L(VDA 유럽 측정 방식 기준)로 1세대 니로 대비 24L 확대했다. 또한 2열 시트를 접으면 완전히 평평한 구성(풀플랫)이 가능하다.

차량 외부로 일반 전원(220V)을 공급할 수 있는 V2L, 고속도로 주행 보조 2(HDA 2), 헤드업 디스플레이, 디지털키 2 등 첨단 사양도 대거 탑재했다. 현재 사전 계약 중이며 가격은 에어가 4852만 원, 어스가 5133만 원(전기차 세제 혜택 전, 개별소비세 3.5% 기준)이다. 원성열 기자

뇌가 섹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플레이 스토어 - 경품광고퀴즈, 날마다운세, 매직스도쿠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도쿠문제

2				6				5
	5	6				9	7	
	9		4		7		6	
		5		2		8		
7			8		5			6
		8		1		7		
	2		9		3		1	
	1	3				4	8	
8				4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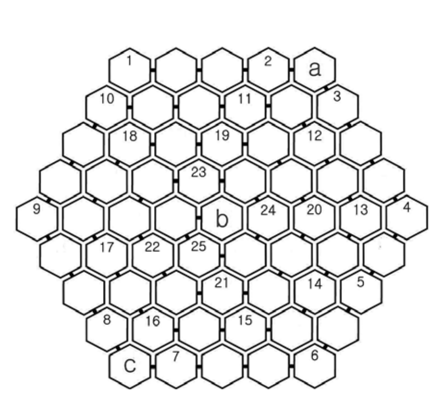
	9	2		5		7		
			2	8	7			6
5		7				1		4
	5						3	
4	7						6	9
	2						7	
8		9				5		2
2			8	3	5			
		5		1		3	4	

■ 스도쿠정답

2	8	7	1	6	9	3	4	5
4	5	6	2	3	8	9	7	1
3	9	1	4	5	7	2	6	8
1	3	5	7	2	6	8	9	4
7	4	2	8	9	5	1	3	6
9	6	8	3	1	4	7	5	2
5	2	4	9	8	3	6	1	7
6	1	3	5	7	2	4	8	9
8	7	9	6	4	1	5	2	3

6	9	2	1	5	4	7	8	3
3	1	4	2	8	7	9	5	6
5	8	7	3	6	9	1	2	4
9	5	6	4	7	8	2	3	1
4	7	3	5	2	1	8	6	9
1	2	8	6	9	3	4	7	5
8	3	9	7	4	6	5	1	2
2	4	1	8	3	5	6	9	7
7	6	5	9	1	2	3	4	8

■낱말문제



01.가난한 사람이 바친 하나의 등이 부자의 수많은 등보다 공덕이 크다는 뜻. **02.**산에 오를 때에 쓰는 모자. **03.**일정 간격으로 여러 개의 세로줄과 가로줄을 그린 종이. **04.**아주 가늘게 내리는 비. **05.**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 **06.**옛 모양 그대로임. **07.**혈통·정분로 맺어진 관계나 인연이 있는 사람. **08.**자기 혼자의 힘으로 집안을 일으키고 재산을 모음. **09.**보수를 받고 남을 개별적으로 가르치는 사람. **10.**사면이 모두 적에게 포위된 경우와 고립된 경우를 이르는 말. **11.**집안 살림의 수입과 지출을 적는 장부. **12.**달걀을 인공적으로 까는 기구. **13.**탄알이 자동적으로 재어져 연속으로 쏠 수 있는 총. **14.**무청째로 김치를 담그는, 뿌리가 잔 무. **15.**자연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음. **16.**말을 알아듣는 꽃이라는 뜻의 말. **17.**아름다운 여인의 얼굴과 맵시. **18.**대한민국의 국기. **19.**이미 시작한 일이므로 중간에 그만둘 수 없음. **20.**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삶. **21.**바둑에서, 고립한 돌끼리 사활을 걸고 싸움을 벌이게 된 상황. **22.**이제까지 들어 본 적이 없음. **23.**출입문 밑의 두 문설주 사이에 가로로 댄 나무. **24.**파도를 막기 위하여 항만에 쌓은 둑. **25.**당사자 이외의 사람.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푼 다음 a~c 칸을 이어놓으면 식물 이름이 됩니다.